

2016년 11월 20일, 성산읍 신풍리 오문복씨 댁, 이현정 조사.
오문복(남, 1938년생, 성산읍 신풍리)

[제보자] 이제, 산소를 잘 쓰면은.

[조사자] 산소를?

[제보자] 응.

[조사자] 봉분예?

[제보자] 산옛 산소를 잘 쓰면은 아주 좋은데 쓰면은 왕후지지라고 헛어, 왕이 나. 그 다음에는 장산지지라 두 번째 좋은데 쓰면은 정승, 판서가 나오. 세 번째 이제 문필봉 좋은 데 쓰면은 과거에 급제하는 사름이 나는 것이요. 착헌 일을 많이 해야. 착헌 일을 많이 허면은 자연히 그 사름에게는 좋은 땅이 돌아가서, 발복을 허게 된다 이거예요.

[조사자] 그만 어떻 핸 왕이 됐인지, 여기서는….

[제보자] 왕이 된이 어떻게 됐냐 허면은, 삼대 적선을 헛어. 뭐라 그러냐믄 이제 어부를 허고 살았는데.

[조사자] 어느 동네에서? 어느 동네라고는 얘기 안 헙디가?

[제보자] 건, 어느 동네 몰라. 어부를 이제 허고 살았는데. 예전이는 어부들이 다 하찮은 신분이거든요. 보자꾼이라고 헛어. 아, 그랬는데 이저, 그, 어부를 허고 이제, 어부로 이제는 살았는데. 이따가 그, 제사 먹을 때 고기 살 돈이 없어서 허는 집도 있는 거 아니요? 그런 집 잇으면은 그냥, 고길 그냥 공으로 줘. 공으로 줘. 딴 거 큰 봉수는 못허더라도 내가 직접 가서 낚아 오는 거.

그 동네 이제 또 예전에는 이제, 노인덜이 뱡들어가지고 뭣햇어. 허면은 이 음식이 이, 저, 뭣허고 허면은, 그 이제는, 고기나 그런 거 필요헌 거 아니요. 그런 집에는 그냥, 그냥 자기가 그냥 고기를 낚아다 줘. 이, 저, 공으로 줘 공으로, 이게. 그래 이제, 근디 찢어지게 가난, 그러니까 고기 풀아다가 매날 풀고 장사를 허고, 걸로 밥벌일 헤야 되는데. 그래 남 많이 줘 불고 자기는 좀 갖곡 허니까 언제나 이제 생활이 궁핍헐 거 아니요? 거, 이제는 그래도 그자 그리햇어. 그니까 그 아덜도 그렇게 허고, 이제 손자고 그렇게 허고.

[조사자] 음, 삼대네예? 삼대.

[제보자] 그러니까, 동네 사람들이

“아, 거, 옛날부터 적선을 허면은 아 자손이 발복해서 잘 됐다고 허는데. 아, 원 저집이는 정말로 아, 원, 아 그리 적선을 헤도 원 저리 춤말로 가난을 못 멘 헨 사니까는 아이고, 공자님 말씀도 거 거짓말.”

이라고 으렇게 그 농담을 헷어, 했는데. 아, 거, 손자가 바다에 나가 가지고는 풍랑 만나 가지고 죽어불었다고, 그러니까 사람들이.

“아니, 그렇게 적선햇어 그렇게 착한 사름이 제 집에, 아이, 저런 이제는 불행을 당해서 안 됐다고.”

이제 으렇게 했는데. 거, 이제 적선을 허니까는 바다에 가서 이제, 풍랑을 봐서 죽으니까는 아 시체가 이제, 땅바닥으로 가라앉을 거 아니요? 그런데 그 이제 그, 딱 갈아앉은 데가 왕후지지에 깔아앉은 것이요, 지금, 시체가. 아,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거는 이제, 그 다음에 있는 말이고, 하이튼 게, 그리….

[조사자] 죽었어.

[제보자] 죽어서 이제 물이 빠져서 허니까 이제 울고불고 허니까 이제, 예전에는 이제는 뭣이냐, 이제, 그, 시신을 못 찾으면은 초혼장이라고 헤가지고 이제 혼을 불러가지고, 뭐 무덤을 만드는 데도 있고, 그냥 요렇게 비석두 세우고 이제 그리해요. 요 사름이 그래서 이제 그 초혼장을 이제는 했는데. 초혼장을 했는데, 이제, 그 부씨요. (불청) 그랬는데 이제, 그 이제, 아까 말한 대로 좀 이제 그, 신분이 높지 안현 그 이제 허니까. 그 바다에서 죽은 사름 아덜이지, 이제 증손자가 증손자가 이제, 공불 헤가지고 이제, 신분이 낮으니까, 과거에 급제는 안 혔고 이제는, 이, 통역관 중국말 허는 역관이 된 것이요. 그래서 이제는 아, 이제는 사신을 따라서 훈 번 이제는 그, 이제는, 예, 중국에를, 이제는, 이제, 갔어, 중국엘 갔는 디. 요 하나있, 큰 것 일댄디 요걸 합치면은 요거 부(夫) 아니요?

[조사자] 부조.

[제보자] 부조이? 아, 중국에를 이제, 그 이저, 사신으로 이제는 가서 이제는 통역으로 따라가니깐 높은 신분이 아니니까, 뭐 고관대작 집에는 가질 안 혔고, 그뜬 이제는 신분 이제 가진 집에 가서 유숙을 헷어. 이제는, 살았는데. 아, 이제는, 우연치 않게 이제는, 그 이제는, 그 집에가 이제, 이제.

“제사라고.”

이제 그러면서 이제, 뭐 음식도 체리고 뭣도 체리고 요렇게 헷어 그래서.

‘아이, 중국 제산 어쨌는가? 훈 번 이제는, 그, 좀 이제는, 이제, 구경해야 뭐겠다.’
마음 먹고 있는데, 요 양반이.

“신분은 낮지마는 어, 이제는, 거, 우리는 이제 그, 이제, 우리 조상이 이제는,
이제는, 저기 뭣이냐. 이제, 우리 집에는 그 제사를 왕의 예법으로 허는 때문에.”

왕의 예법은 절이 달라요. 우리는 요리 서면 요기서 절을 허지만은, 요렇게 옆
이 서서 요렇게 절을 허는 거요. 원래 예법이요. 그래서 우리는.

“어째서 이젠 당신네가 이제, 왕이냐?” 그러니까

“그러면 그 당신은 성이 뭐냐?”

그니깐, 성이 두 글자가 일대(一大)래요. ‘자기네 성은 일대.’ 라고.

[조사자] 일대? 음, 부씨다 이 말이구나.

[제보자] 일댄데, 이제는 일댄데, 이, 저, 어디 자기네는 지금,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신분
은 아니지만은 자기네 이제는, 웃대 고조 할아버지가 이제는 그때부터 성씨를 일
대라고 썼는데, 이 구슬 옥자.

[조사자] 구슬 옥.

[제보자] 응, 우리 이제는 그, 할아버지가 이젠이 옥도라고 허는 섬에서 이제 처음에 태어
낫는데, 옥도에서 섬에서 태어나서, 이제는, 처음에는 그 ?을에 자사가 됐다가
그 다음에 이제는 왕이 됐는데.

[조사자] 뭐가 됐다가마씨? 원래는?

[제보자] 왕이 됐는데, 왕 되기 전에는 이 옥도에서 태어나 가지고, 그 옥도에 이제 우두머리
가 됐다가, 왕이 됐는데 어떻 헨 됐냐 그러면은 아 섬이 사니까 이제는, 그 이제는
뭣이냐. 중국도 아마 우리나라 모양으로 섬을 하찮게 봤던 모냥이라, 그래서 아.

“나는 평생 소원이 섬에를 살지 말고 좀, 땅 넓은 곳을 가서 훈 번 돌아다녀서
이제는 섬에 사는 그 천한 이름을 벗어야 뭐겠다.”

해서 이제는 중원으로 갓는데, 중원에는 말도 모르고 또 이제 부칠 수가 엊어.
이제, 그래서 또 올라가는 것이 이제는 만주여.

[조사자] 만주.

[제보자] 응,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그래서 이제는, 이제는, 왕이 뭐가지고 이게, 이게 청
나라라 그 말이여. 그래서 이제 통천자라 그래, 이제, 그래서 이제는 통천자가
뭐였는데, 이제는, 그니까 이제, 왕이 됐 그 할아버진 허고는 이제는, 그러니까 이
제, 두 번째 아덜을 이제 왕자를 물려주면서

“사름이 자기 조상 근본은 잊어버리지 안 혀니까, 우리 조상은 그렇게 신분이

높은 조상이 아니기 때문에, 이제는, 이. 큰아덜에 큰손자 아덜만은 다신 중간 신분을 가지고, 제사는 왕이 예법으로 헤서 헌다.”

“아, 그래서 춤 성씨도 귀하다.”

가만 생각해 보니깐은 요, 요, 요, 이제는 일대가 요 부씨여, 부씨.

[조사자] 부씨.

[제보자] 응, 그래서 ‘아, 우리 이제는 그, 이제 옛 할아버지가 봐서 이제, 돌아가셨는데, 그러나 물에서 돌아갔으니까 거기서 혈 뭣은 아니고 거, 춤 이상하다.’ 요렇게 헷어. 이제는, 그 이제는, 중국 이제 그, 점 아주 잘 짓는 데 촛아가가지고는.

“내가 부씨고 여기와서 보니까, 부씨가 뭣해서 왕이노라고 해서 뭣하고. 자기네 조상 위해서 헌데. 아,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예전에 아, 어부를 허다가 바다에서 돌아가셔가지고, 아, 중국에 건너왔다는 말은 없는데 혹시며는 중국에 건너 오지를 안 했을까?”

아 그 말은 안 하고 이제, 그래서.

“돌아가서 우리가 장소도 지내고 제사도 허고 요래서 아, 훈데 아, 여기 대, 일대 부씨가 있는 것이 춤 그 이상하다.”

이, 그, 점쟁이가 이제 아주 상통천문하는 점쟁이가 탁 보니까는.

“아이고, 그 양반이 그때 빠져가지고, 사실은 이제 물 속에 들어갔는데, 그, 들어간 땅이 이제 임금날 왕후지지로 빠졌어, 그래서 헌데, 아 그냥 이제, 남해용 왕에서 아 이 사름 뛰어난 사름이 여기 올 사름이 아이고 내보내라고 헷어, 내보내서 이제는, 그, 만주로 가 가지고, 지금 이제 왕이 됐어, 아마 당신네 조상이 크게 아마 적선을 헷어, 그 이제는, 당신네는 모르지만은, 지금 이제는, 요 통천자가 됐다.”

고, 통천자는 뭐 천천자라는 말이요, 지금, 그래 거, 부씨라 그래.

우리 제주도 부씨가 그랬다고 그래. 근데 그 중국으로는 이제 그, 일대, 그 중국서는 부라고 아니 혀고, 성이 두 글자 성이 일대 씨라고 허고.

- 핵심어 : 청나라 황제, 부씨, 산소, 왕후지지, 발복, 삼대 적선, 보자꾼